

6호

동북아한민족 협의회보



사단
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People in Northeast Asia

- 발 행 일 : 2024년 6월 30일
- 발 행 인 : 양병희
- 발 행 처 :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15-4
- 대표전화 : 02-3423-0451
- 이 메 일 : janne1230@naver.com
- 디 자 인 : 영성네트워크(주)

※ 이 책은 저작권법이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Contents

04

펴내는 말 | 음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 / 양병희

08

칼럼

6.25의 달에 / 이정익

세상살이에는 공짜도 비밀도 정답도 없다는데 / 김회동

16

나눔

기계와 인간 / 이양호

북한 체제 변화와 선교전략 / 가월현

24

기획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 김원배

신앙으로 조명된 이성 / 이순식

이스라엘 민족형성의 개요와 남북관계의 희망 / 한안석

42

건강칼럼 | 한결 같은 기다림 / 최종수

44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소개

45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섬기는 분들



음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

양병희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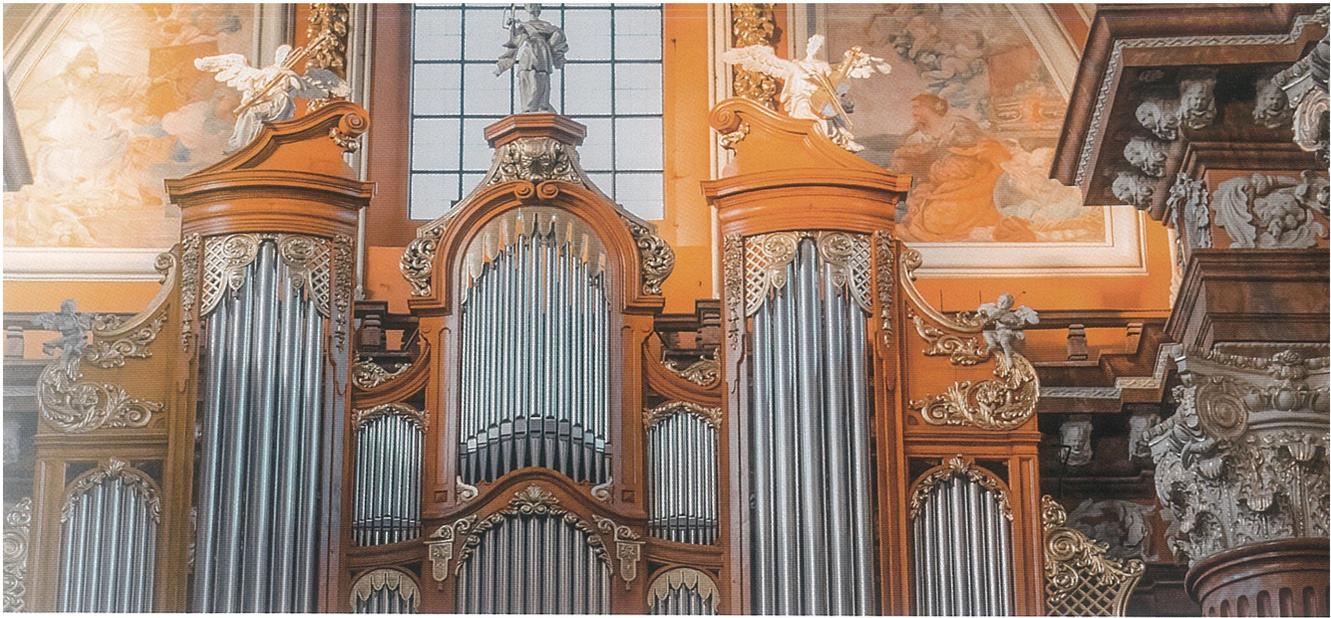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장

교회음악 예찬론자인 루터(Martin Luther)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마귀를 몰아내며 죄 없는 기쁨을 일으키고 '평화의 때'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지자 서로 총구를 겨누던 독일군과 연합군 양측 모두 참호에서 나와 잠시나마 휴전을 갖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낳았다. 이처럼 음악은 메마른 인간의 정서와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것이다. 2023년 9월 9일 예장백석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에서 '할렐루야'가 3만 석 규모의 대형 행사장에 울려 퍼졌을 때 음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최고의 문화적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충돌, 내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 다시 한번 지구촌 곳곳에 찬송가가 울려 퍼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교회음악

장 칼뱅(Jean Calvin)은 기도에는 '말로 하는 기도'와 '노래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였다. 교회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면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회중 찬송은 없고 지정된 가수만이 노래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또한 악기 사용과 창작 찬송을 금하는 규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예배 때에는 시편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는 여러 나라의 민족 음악적 요소들이 가미되기도 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서는 특정 양식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다만 교회음악의 본질은 시대 구분 없이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회음악은 섬김으로써 음악의 목적인 아름다운 그 이상의 것이며 음악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음악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의 소리가기에 성도들의 신앙 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능동



적이고 생명력 있는 선교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찬송가는 1892년에 가사만 있는 『찬미가』의 출간에 이어 1894년 언더우드와 악보와 함께 117곡이 수록된 『찬양가』를 출간한 것이 최초 규모를 갖춘 찬송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1905년 감리교 찬송가집인 『찬미가』가 있었고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만든 가사 『찬송가』, 1909년 악보 『찬송가』 1판이 1911년 조선총독부의 ‘인가교과용 도서’가 되자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사립학교 중심에서는 성경과 한글을 깨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당시 국내외 항일 현장에서는 애국가이자 독립가로 불리기도 하였다.

현재의 찬송가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서 2006년 새롭게 편집한 『21세기 새찬송가』이다. 1983년도에 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 새찬송가로 나뉘어져 있던 찬송가를 『통일찬송가』 한 권의 찬송가로 출간하였다가 1996년부터 교회음악전문가, 국문학자, 영문학자 등과 함께 10년의 연구 개발기간

을 거쳐 출간한 것이다.

복음전파와 한국가곡에 지대한 영향을 준 찬송가

1884년 알렌(Dr. Horace N. Allen)의 제물포 도착을 개신교 원년으로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입국하면서 찬송가도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유입된 통로는 군대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군대는 기악에, 교회는 성악에 관심을 가졌었다. 서양의 노래가 처음 불리기 시작한 것은 예배에서의 노래와 찬송가들이었다. 이러한 개신교 찬송가는 한국 예술가곡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00년대 초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찬송가의 열의를 더욱 증가시켰고 예배 시 찬양에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많은 교인들이 전도대를 조직하여 거리로 나가 복을 치며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하였다. 본격적인 교회합창은

동은 1909년 내한하여 평양숭실학교 교사로 시무하던 모우리(E.M. Mowry)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그는 장대현교회 찬양대를 조직하고 지휘자로 4부 합창훈련을 시켰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찬양대이다. 이어 1920년대에는 숭실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합창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음악전도대를 조직하여 북부지역의 도시를 순회하며 전도를 위한 합동공연을 펼쳤다.

북한의 김일성이 전략 전술이나 교육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행해오던 찬송가로써의 복음 전파 방식이었다. 김일성이 받아들여려 했던 방식은 기독교 목사들이 청년들을 끌기 위하여 처음에는 청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공책이나 연필 같은 것도 주고 노래도 부르게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흥미를 느끼게 한 다음 점차 기독교 교리를 설교하는 방식이었다.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음악교육은 최초의 신교육기관인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에서 창가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나 교회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서양 찬송가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1925년에는 한국 최초의 음악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현재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연주회용 그랜드 피아노는 1911년 독일의 블뤼트너(Bluthner)사가 제작한 것을 1932~1933년경 들여왔다고 한다. 이 피아노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피아노로 수많은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 성장시킨 한국 근현대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유물로 인정받아 2011년 국

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찬송가에 매료되기는 북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인가 싶다. 탈북자인 태영호는 학생들이 봉수교회 담장 밖에서 몰래 찬송가를 채보했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하였다.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면 청년 몇 명이 나타나 교회 담장에 기대어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것을 보고 보위부가 그들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음악대학 작곡반 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북한의 음악대학에서 자유주의 국가의 명곡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찬송가 선율을 들은 한 음악대학 학생이 급우들과 함께 찬송가를 채보하고 싶었던 것이다.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몰래 담장 밖에서 채보를 하다가 보위부에 붙잡힌 것이다.

음악선교에 대한 고민

유명한 찬송가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와 더불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캐럴의 대다수도 찬송가로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찬양대는 많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인들은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상호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된다.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해외 선교에서 음악선교는 더욱 큰 매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언어가 달라도 음악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이나 미얀마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음악선교는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음악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한반도의 북음통일에서 음악선교의 역할 및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음악을 체제 선전 선동의 매체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외교 수단으로도 잘 활용한다. 김정은은 2013년 “모든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모란봉악단’을 치켜세웠다. 2015년에는 청봉악단을 창설하였으며 2020년에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및 가수로 구성된 대형 국무위원회연주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북한은 국제교류음악회와 각종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과 서울에서의 공연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2017년 평양 장애인교류단의 영국 공연, 2018년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쿨대회도 성공적이었다. 2019년에는 대규모 예술대표단을 중국에 파견 공연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상급 문화공연으로 음악을 문화외교에 잘 활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음악들은 북음성가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령형상 음악과 한국의 북음성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음악 모두 가사를 표현하기 위한 극적인 선율을 가지고 리듬과 화성, 구조와 형식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가사적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선율적 특성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서 음악선교

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정부는 재능있는 음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예술 소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1인 1기’라 하여 각종 악기 배우기를 권장하여 정치 모임이나 각종 현장에서 선전·선동 활동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악기 보급은 개인이 아닌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아주 제한적이다. 따라서 음악적 NGO 활동으로 북한에 다양한 악기를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북음통일 시대에 직접적으로 북음을 전하는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찬송가나 북음성가의 선율적 특성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음악선교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6.25의 달에

이정익 박사 |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이사장 /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또 다시 6.25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아직도 남북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채 70여년전의 그 참혹하였던 전쟁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달입니다. 우리민족은 매년 이 6월만 되면 그날의 참상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지만 6.25의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 다음날 유엔에서는 16개국이 참전을 결의하였고 5개국에서는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결의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신속하게 한국전쟁에 참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참전국들은 당시 한국땅이 어디에 있는줄도 모른채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오늘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오늘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폭력배같은 러시아를 규탄하면서도 직접 참전하여 싸워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참으로 매정하기 그지없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참전용사들은 이 땅에 와서 싸우다가 4만여 명이 전사합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미 8군 사령관 워커중장의 아들도 참전하였고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 아들도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중장의 아들은 조종사로 참전하여 북한 상공에서 야간폭격을 감행하다가 격추되어 전사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참으로 신비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십만명의 젊은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싸운 것만도 신비한 일인데 특히 미군병사 중에는 미국의 고위



충 아들이 참전하였고 또 전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6.25전쟁은 하늘이 만들었고 하늘이 주도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6.25는 전쟁뿐 아니고 또 다른 선교의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6.25를 계기로 군선교가 시작되었고 군목제도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손원일 해군제독의 제안으로 군 일각에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하였고 미국 윌리엄 쇼(한국명 서위렴)라는 미국 감리교 군목이 1950년 6월 한국전에 참전하여 군목제도를 제청하자 한국교회에서는 한경직목사등이 노력하였고 이승만대통령이 재가하여 마침내 1950년 12월 군목병과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한 일인데 이것은 모두 오늘 주어진 참혹한 현실들이 만들어낸 기적들이었습니다.

군 병영내의 분위기가 복음화 쪽으로 흐르게 되자 1969년 한신장군등의 주창으로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투철한 군인의 정신교육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군인들은 한가지씩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통한 것입니다. 그 제안에 공감한 박정희대통령은 신앙전력화라는 명제를 그의 붓글씨로 족자화 하여 각 부대마다 걸어놓게 하였습니다.

1970년대는 북한의 공작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군정신통일이 더욱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때 박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족자는 각급 부대의 내무반마다 걸게 하였고 부대 군목들의 활동으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70년대는 한국 군역사에서 보면 황금기였습니다. 그 결과 1972년 그 유명한 진중세례식이 열려 한번에 수천명씩 장병들이 세례를 받아 논산훈련소는 젊은이들을 복음화하는데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5년간 400여만명의 군장병들이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경이로운 세례식이 마침내 2010년에 이르러 인권침해논란에 휩싸여 그 대안으로 비전 2030실천운동이 태어나게 됩니다.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을 1004개의 군부대에서 양육관리한 다음 그들이 제대한 후에 향후 10년간 100만명을 한국교회에 이관하여 파송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군의 강력한 전력화는 일단은 무기체계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무기는 전투에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무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무기는 군의 정신무장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무기의 부족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패배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월남전에서 싸우면서 사명감이 없었고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신형무기가 있었으면서도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다루지도 못하였습니다. 거기다 베트남군의 인해전술과 심리전에 휘말려 전투의지력이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정신무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주위에 1억명의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적들에 포위되어 나라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나라의 지도자도 군인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은 무섭습니다. 그들이 무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무섭지 않으면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무서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야웨신앙입니다. 1967년 6일 전쟁때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전쟁에서 병사들이 나가 싸우고 있을 때 국방장관은 방송국에 앉아 시편 27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시편을 낭독하는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전투에 나가있는 전쟁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가 이 나라와 이 군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6.25전쟁은 얼핏 보면 불행한 역사이고 참상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하며 들여다 보면 한국의 6.25전쟁은 한국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이 6.25전쟁을 통해서 전세계가 한국과 한국민족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나라를 찾아와 침전하였고 불행한 전쟁에 동참하여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순간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은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서방세계에 편입되는 순간이었고 서방세계의 편입은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어 오늘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한국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후 신속한 복구는 물론이고 오늘 근대화를 이룬 나라중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6.25를 거치면서 한국은 영적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근대역사중 주목할 역사는 세가지입니다 그것이 3.1절, 8.15, 6.25입니다. 이 세 역사는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진행하신 역사입니다. 알다시피 3.1절은 한국기독교의 일제를 향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8.15는 전적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민족이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은 전무합니다. 6.25극복 또한 우리들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세계인들을 한국땅으로 불러 모아 주셨고 위기때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날의 참상들을 되돌아보면 모두가 신비한 일들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고생도 하였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얻은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큰 복은 기독교의 부흥과 민주주의의 정착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6.25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있을 때 모두가 여기가 종사오니 하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자기들끼리만 먹고 편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세상으로 흘러 넘치고 빠르게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안주하며 평안히 오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흐름에 따라 사미라아와 이방 세계로 퍼 날라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으니까 스테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흘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전국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6.25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습니다. 당시 부흥하던 교회들이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모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일로 만족해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땅에서도 이루셨습니다.

북한땅에 공산군이 들어와 핍박이 주어지니까 평양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남하하여 거제도도 부산으로 내려와 남쪽에서 신앙부흥을 이루었고 그 불길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전국 땅이 마침내 순식간에 부흥의 불길로 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6.25때 나뉘어진 땅과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입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근대역사 가운데 세마디 역사 즉 3.1절과 8.15와 6.25는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역사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해방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과제입니다. 이 통일 문제는 우리민족만이 할일도 아니고 주변 몇나라가 할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누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합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민족이 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대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관심은 개념조차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뉘었으면 봉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한국 생활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모험 하나로 이 땅을 찾아온 북녘동포들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들 입으로 북에 있는 동포들과 가족들에게 남한은 말 그대로 살기 좋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고백이 그들 입으로 전해져 북녘동포들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남한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남쪽이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통일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도 해방처럼 도적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남한에 와 살고 있던 탈북민들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북한의 재건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남한이 할 수 있는 통일 준비일 것입니다.





세상살이에는 공짜도 비밀도 정답도 없다는데

김회동 박사 | 한국통일협회 기독교신우회 회장
안동김씨 대종중 정헌공파 파종회장

적지 않은 나이를 먹은 지금도 '그래 맞아 그 말은 맞아' 하고 수긍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세상살이에는 공짜도 비밀도 정답도 없다는 말이다. 언뜻 듣기에는 농담 같지만 새겨볼만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가까운 사이 즉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학교 선후배 간에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럴까? 가까운 사이도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어느 한 가지를 뺄 수는 있어도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대인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친구 간에 둘이만 알아서 한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부풀리고 왜곡 되어 되돌아 올 때도 있다. 그야말로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판에는 친구 이기에 비밀스런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살이에 너와 나만 알자는 비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늘 만나는 친구 간에도 몇 번을 연속하여 대접만 받으면 그 다음은 대접이 소홀 하거나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우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젊은 시절 성실히 살아야 인생 후반부가 편안한 것이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경우와 분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젊은 시절 지위도 있고 잘 나갈 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자기 말과 생각이 정답인양 동료에게 또는 부하 직원에게 자기주장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흥분된 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결정하면 사후에 후회 하는 경우가 많다. 문서를 신중히 검토 하지도 않고 직감으로 결정 하거나 또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나름의 답을 정하고 그것이 정답 인양 그길로 밀어 붙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고집이 세거나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한테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이야말



로 셋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 할 것이다.

6.25한국전쟁 중에 백선엽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취임을 앞두고 벤플리트 미8군 사령관과 함께한 영전축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참모총장 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자문을 구했다. 벤플리트는 “나는 귀하의 전력으로 보아 참모총장직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참모와 예하 지휘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또 어떠한 어려운 일에 봉착하더라도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룻밤을 잔 다음 결정을 내리시오. 그리고 예스(Yes)와 노(No)는 분명히 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오.” 라고 조언 했다. 그 후 이 조언은 각급 지휘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귀감으로 삼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대소사를 처리함에 있어 정답이 없다는 것은 다른 답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니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인생살이에 귀감이 될 만한 말을 소개함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명심보감의 繼善篇을 보면 莊子曰 ‘一日不念善이면 諸惡이 皆自起니라’ 하였다. 이 말은 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論語에도 ‘德不孤 必有隣’ 이라 했는데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성경말씀에도 욕심을 버리고 본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였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다. 인간관계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가장 추한 것이다. 성인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비밀스런 말을 삼가고 너무 강한 자기주장을 버리고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여호와 닮은 여호와 승리의 깃발아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가까운 사람들과 Hi Five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계와 인간

이양호 박사 | 정치학 박사, 전 고려대 교수

최근 AI가 인기를 끌면서 인간의 노동을 모두 기계가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ChatGPT 등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써주거나 번역을 해주는 거의 만능인 생성형 AI가 생겨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고 세계적으로 GDP를 7% 올려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은 막기 어렵게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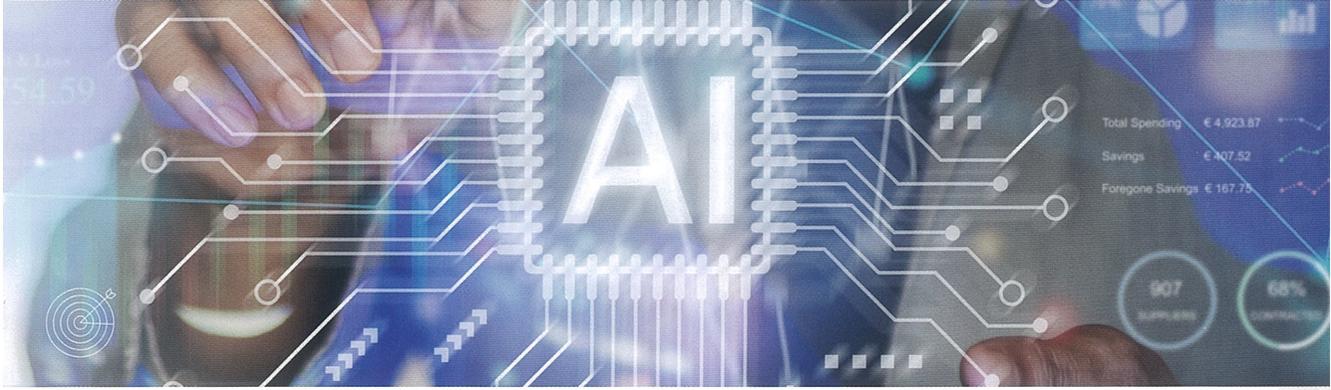
인간의 영역이던 바둑, 이제는 AI에 게 밀려



1980년대 필자도 참가했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바둑대회 모습

과거 기계가 할 수 없는 순수한 인간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게임이 있었다. 바로 바둑이다. 영어로는 Play of Go, 불어로는 Jeu de Go라고 한다. 바둑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강하다. 그렇지만 바둑도 세계화되어 유럽에도 바둑을 상당히 잘 두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 각국에는 약 1,000명 이상의 바둑 애호가들이 있고 국가마다 바둑클럽이 있다. 예를 들어 파리에는 바둑을 둘 수 있는 카페가 있다. 모스크바에는 바둑 동호인들이 매일 모여 바둑을 둔다. 여름이면 유럽 각 나라에서 돌아가며 유럽 세계대회가 열리고 여기에는 유럽 각국의 바둑동호인들이 참가한다. 그동안 바둑은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깨지기 시작했다. IBM의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던 것이 1997년이다. 그나마 바둑은 체스와 달리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인식되었지만 이마저도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없게 된



러시아 모스크바의 바둑동호회 바둑 두는 모습

것이 2015년부터였다. 구글이 영국의 답마 인드를 인수하면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2015년 프랑스의 판후이 2단을 5전 전승으로 이기고, 2016년 이세돌 9단과 4승 1패를 기록하며 인간을 이겨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 중국의 커제 9단에게는 3전 전승을 기록했다. 아마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한 번 이긴 것이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계를 이긴 유일한 게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바둑 프로기사들이 기계에게 2~3점 접바둑을 두어야 할 정도이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

세계는 지금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생성형 AI로 미국에서 3억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AI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3년 안에 노동자의 30%를 대체할 것이라든지, 2030년경 세계적으로 8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년 미래 일자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9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았다. 노동시장에서 23%의 구조적 이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벌써부터 세계적인 유명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AI로 대체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알방 드 빌뇌브바르즈몽 자작은 1837년 저술한 책에서 영국에서 기계가 2억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고 프랑스에서는 300

만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다고 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자 기계를 파괴하자는 러디아트 운동도 일어났다. 탈곡기, 방적기 등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했다. 그러나 당시 기계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했으나 다른 자리들도 많이 생겨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AI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인간의 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ChatGPT 등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써주거나 번역을 해주는 거의 만능인 생성형 AI가 생겨나고 AI를 위한 반도체도 양산되고 있어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말만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AI 프로그램도 있다. 화가가 아니어도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빵을 만드는 것도 자동화되어 있어 반죽이나 발효뿐만 아니라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라인에서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 제빵사가 있고 각자 분업을 통해 빵을 만들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계가 해주는 만큼 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실업에 처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자리를 둘러싼 찬반 논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처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다른 하

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다른 자리들이 만들어져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로봇이나 AI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은 과거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며 인간의 노동은 기계로부터 축출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등 일부이고 대부분의 직업에서 노동시장 이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가 범죄와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면 상상하기 힘든 재난이 발생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각종 범죄와 사기가 늘고 이것을 적발하고 처리하는 인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현상들이 늘어만 갈 것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수법도 정교해지는 데다가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가미되면 그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생활은 아주 편리해졌으나 각종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해커들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해 왔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AI가 방패 역할을 한다 해도 공격하는 측에서도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더욱 가공할 일은 기계가 전쟁에 참여하

는 것이다. 기계를 통해 폭발물 제거 등 인간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인간을 죽이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진룽-2024의 경우 로봇이 정찰도 하지만 소총을 장착하여 인간을 죽이는 전투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출산율이 하락하여 군대에 입대하는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국가에서 이러한 전투용 로봇이 병사의 임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계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요즘 드론도 벼농사 지을 때 병충해 작업에 사용되는 등 생활영역에서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최근 전쟁에서 보면 드론이 효율적인 공격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투용 장비나 기계에 인공지능까지 가미된다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아무리 인간이 기계를 통제 가능하다고 하지만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기계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기계와 인간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터미네이터라는 시리즈 영화는 기계와 인간의 전쟁을 그린 공상과학 SF영화다.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기계가 기계를 재생산해 낸다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도 든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 멸종되

거나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이 과연 영화 속에만 나오는 허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북한 체제 변화와 선교전략

가월현 박사 | 통일지도자아카데미 원장 / 동북아학 박사(Ph.D)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가장 긴장이 높아지는 곳이 중국-대만 정세이다. 중국은 반중국 성향의 대만 총통 라이칭더(賴清德) 취임식 후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2024.5.23.). 또한, 북한의 10월(2024년) 도발 가능성을 美 행정부 관계자가 언급하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이 비무장지대나 국경 인근 섬 지역²⁾에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안심되는 것은 중국이 당분간 한반도에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전문가 전망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 김정은은 체제에 변동 요인으로 북한 권력자가 남한을 상대로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북한-러시아의 관계 밀착은 북한 김정은에게 무모한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더하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 대

변인이 밝히고 있다(2024년 5월 24일). 북한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유엔 대북 제재 반대로 국제 사회의 압박에서 교묘히 벗어나고 있다. 북한의 악의적 자신감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밀약적으로 지원하는 원인이 크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출처 : 연합뉴스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최대의 우군은 북한이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것은 ‘제한적’인가? 그렇지 않다. 지난해 국정원 발표대로, 러시아가 수입한 북한산 152mm 포탄 100만개는 1개당 600달러를 잡아도 약 6억달러다. 미사일과 드론까지 합하면 수십억달러다. 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자와 전선 투입을 위한 용병 등 20만 명 파견설이 회자한다. 용병의

1) 중국은 대만을 받듯이 흡수해야 할 33번째 성(城)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만 총통을 지도자라 한다.
 2) 북한은 2010년 연평도에 포격으로 도발한 적이 있었다.



경우, 매년 1인당 3만 달러를 벌고 실전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의 월남전 파병과 동일하다. 러시아로서는 자국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북한 병사로 대체할 수 있다. 게다가 새로 편입된 동남부 4개 주는 북한과 호혜적 경제 파트너다. 북한이 곡물과 증장비 부품과 코크스를 수입하고, 마그네사이트를 수출할 수 있다.”³⁾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무기 판매한 수익이 2023년 한 해에 20억 달러가 초과한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기 전, 유엔 제재 가운데 연간 수출액이 약 15억 달러였다. 따라서 무기 판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수출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파견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수익을 더하면 북한은 그동안 국경 폐쇄와 제재로 인한 경제 난국을 벗어나고도 남을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얻는 자신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필자는 북한이 남한에 도발 가능성은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이라고 예견한다.

북한 정권, 체제 변화 가능성

북한은 경제 난국을 벗어나고 있는데 왜 내부 통제는 바짝 강화하고 있는가? 필자는 북한의 내부가 급박하고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체제 유지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유로 첫째는 김정은의 딸 주애(13세 추정)로 후계자 굳히기를 하고 있다. 김정은의 나이나 주애의 나이, 북한의 가부장 풍습에 반대되는 후계자 선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급박한 북한의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내부 주민의 통제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생활품 수급에 필수적인 시장(장마당)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이유이다. 외부와의 교류 통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 특히 이미 북한 내부에 침투한 남한 문화를 빼내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⁴⁾ 셋째는 과거 남북 교류 교통로들에 지뢰를 매설하고 군사지역으로 전환하는 이유이다. 표

3) 박종수(2024),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러시아, 북한 전문가.

면적으로는 앞으로 남과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적이지만 남쪽을 적대화하여 북한 내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이유가 있다.

과거 북한의 권력자는 내부를 강력히 통제해야 할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는 김일성 사망(1994년) 시기, 김정일 사망(2011년) 시기였다. 김일성 사망 전 1992년에 프룬제 군사학교⁵⁾ 출신의 쿠데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부터 김일성이 사망(1994년) 후까지 북한 내부에 엄격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사망(2011년) 전 2010년 3월에 천안함 피격, 12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벌였다. 그 사이 9월에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를 발표한다. 2011년 예정된 김정일의 사망 진단에 급박하게 후계자를 발표하고 그 전후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남한을 적대화하고 내부를 전시 준비상태로 통제한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선동전략이다. 몇 년 전부터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되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 의하여 북한의 전통에 맞지도 않은 어린 딸을 후계자로 급하게 부상시키는 형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돈으로 그동안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 분

배해야 함에도 오히려 주민 통제와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듯 특히 북한은 체제 불안 요인이 있을 때마다 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은 자기 일인 권력 체제 강화를 위하여 강력한 반대 세력⁶⁾을 제거하기 위하여 6·25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이렇게 북한의 권력자는 체제 유지의 전환점마다 강력한 내부 통제를 위하여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므로 북한이 올해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의 체제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북한에 김정은이 사망으로 그의 딸 김주애로 권력이 승계된다면 그것은 김씨(백두혈통) 권력의 끝이 되리라 본다. 그렇다면 그 후에 북한은 붕괴하는가? 북한은 일인 독재정치, 뇌물충성경제 체제 국가이다. 즉 불량한 시스템이지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붕괴보다는 군부에서 권력자가 나오게 되어있다. 차기 군부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남한에는 강력 봉쇄, 기타 주변국에는 국경 차단할 것이며 항공만 개방할 것이다. 이것은 독재 국가들의 특성이다.⁷⁾ 남북통일은 지정학적 요인과 강대국들의 패권 정세 속에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

4)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 2023년 개정)'을 제정하여 철저히 주민과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5) 프룬제 군사학교는 1932년 설립된 러시아 군사 종합 아카데미이다. 이 학교 북한 장교들이 불만을 갖자 진압되어 숙청되었다. 권력자는 내부 통제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했다.

6) 김일성을 반대한 기독교 세력(자본가), 조선 민주당(조만식 장로), 박헌영 등을 6.25전쟁 통해 제거하였다.

7)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등이 그렇다.

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가 결정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선교 3.0

김씨 권력이 끝나고 다음 권력자는 북한
을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 그
렇다고 자본 시장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제 가능한 시장 경제'가 될 것이다. 그러
나 북한 내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 경
제 시스템을 운영할 중간 관리자가 전무 하
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 운송, 금융, 무역
등의 시스템 운영 관리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선교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선교가 북한의 개방 시기를 준비하는
제3의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
국과 영국에서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미
국은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와 교포 중심(미
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와 교포 디아스포라)
으로 북한 체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영
국에서는 재외 동포 중심으로 탈북자와 동
포가 하나되어 북한 체제 변화를 준비하는
학교가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체제 변화 후 북한 체제 시스템과 유사한 중
앙아시아에 탈북난민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출처: 연탄한겨레
학교



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학교가 세워져야 한
다. 즉 이들은 민족의 피난민이다. 이들을
위한 '피난민공동체'를 세워 북한 체제 변
화에 준비하고 북한 교회와 사회를 재건할
준비의 북한선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피난처공동체'인 아들
람 굴에서 이스라엘의 대안세력으로 계획
하시고 준비하셨다.(삼상 22장 1,2절) 그러
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
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들고 그
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
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폭정과 세상에서
억울함 당한 자들이 아들람 굴에 모였다.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 왕
국을 꿈꿨다. 북한의 독재 권력자와 권력
층의 폭정에 원통함을 당한 자들이 이탈하
여 떠돌고 있는 북한 난민이 중앙아시아에
약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북한 난민이 향후 1-2년 내 러시아의 외화
벌이 노동자로 인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이라는 피난민이 50여만 명이 거주
하고 있다. 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김원배 박사 | 빛고을평화포럼원장 / 꿈동산교회 원로목사

필자가 섬기고 있는 빛고을평화포럼을 창립하는 구상을 할 때 떠오르는 성경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나라 실현이라는 오늘의 가장 구체적인 표징이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동시에 대학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함석헌 옹(翁)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는 책에서 읽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평화를 통한 메시아적 사명이라는 담론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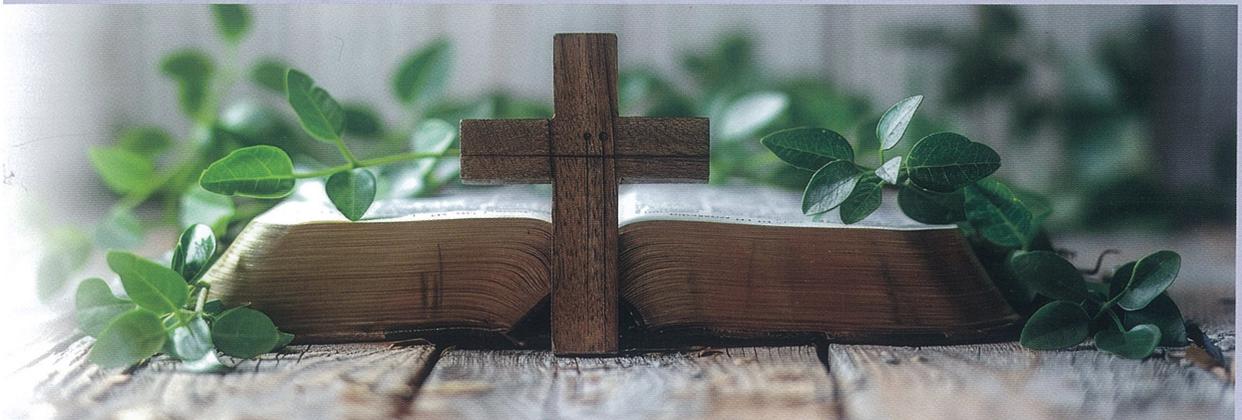
평화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

함옹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고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성서조선이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성서적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 탐구의 결과로 그가 얻어낸 결론은 5천년에 걸친 조선 역사의 기초가 고난(苦難)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역사연구 셈법으로 한반도에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역사적 기록만을 보더라도 560년의 전쟁

과 침략이 있었다는 것이다. 후에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들에 따르면 한반도 오천년의 역사는 931번의 전쟁과 침략으로 점철되었고 마지막에는 36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 시대로 결말이 났음을 알 수 있다. 함석헌 옹은 성서적 역사관인 하나님의 섭리(攝理)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고난과 수치로 점철된 역사를 허락하셨을까를 묻던 중 이사야 53장 4절 이하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석헌옹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신 까닭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계경영의 섭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세계평화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선택하셨고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주셨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 깨달음을 바탕



으로 그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가르쳤던 오산학교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 민족에게 부여한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받아들이자고 설득하였다. 그의 성서적 관점에서 건져 올린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한국역사에 대한 해석의 관점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희망으로 깨우는 메시지였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되리라“고 세계사속에서 한국민족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사명을 응원하였다.

지리학적 태생적 운명

우리 한반도가 세계 강대국들에 에워싸여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태생적 운명이다. 다시 한 번 세계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서북쪽으로는 중국이,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해 있다. 그들이 한반도를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륙세력이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남쪽으로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도 우리 땅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해양세력’이다. 오랜 옛날부터 이 세력들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나라를 두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조선이 급속도로 몰락해 가던 고종 때 그네 나라가 우리 땅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노골적인 각축전을 벌였는가는 역사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의 지배아래 들어갔고 2차 대전의 주범국이었던 일본의 패망과 함께 6.25 전쟁의 발발에 따른 두 강대국의 분할점령으로 국토는 분단되고 말았다. 이 네 나라의 우리를 향한 야욕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운명이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5천년 역사가 이어온 우리 역사 속에 축적된 지혜를 발휘하

여 세계사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태생적인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함석헌 옹이 성서적 역사관의 관점에서 고난으로 점철된 5천년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주셨다는 통찰은 열강들의 틈바귀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민족을 깨우고 믿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한국문제 전문가인 영국의 <포스트 카터> 교수는 가디언지에 “동아시아의 21세기를 전망“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중, 러, 일본, 미국 등 고래들에 시달린 코리아는 이제 세계 11위 무역국가, 평화국가로서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세계라는 광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민활하고 지혜로운 돌고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바로 작지만 강하고 역동적인 중견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외부인들이 인정할 경우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세계적인 석학 <오다 하루키>는 한반도를 “동북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장과 대결의 장”이라 규정하면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동북아의 공존 공생과 화해 협력의

중심이자 매개체인 한반도, 즉 남북한이 서로 접근하여 통일되고 혁신된 남북한을 만들어 이웃나라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면, 남북한은 동아시아라는 공동의 집의 축심(軸心)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통일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²⁾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평화의 미래를 한반도에 실현하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 인가를 얼마 전 우리 역사 속에서 전개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다.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1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으며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두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중대사를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

<판문점선언>은 1972년의 <7.4 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공동선언>, 2007년의 <남북관계 발전

1) 조정래, 홀로스와 함께 살다, 300쪽에 담긴글 참조

2) 오다 하루키,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집 108, 29-31

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이르기 까지 역대정부의 합의를 인정하고 확대 발전시킨 의미가 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기존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에 또 하나의 초석을 놓는 것이었다.

남북 정상은 그 후 이어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남북정상의 합의가 그 이후에 이어졌던 북미 싱가포르 회담과 베트남 하노이회담을 통해 무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한반도의 현실은 다시 남북을 적대국가로 신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³⁾

평화의 불씨에 불을 붙이는 성냥

우리는 평화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알고 있다. 인류가 평화를 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역사가 탄생한 이후 하루도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평화는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인도 출신 <사티쉬 쿠마르>⁴⁾는 세계적인

평화 운동가이자 환경 운동가이며 교육자이다. 그는 1991년에 영국 데번주 다팅턴에 슈마허대학을 창립했다. 세계 90개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배출한 졸업생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내면은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단지 휴면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내면에 불을 붙일 성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냥은 <버트란트 러셀>경 이었다. 사티쉬 쿠마르는 러셀이 아흔살 나이에 핵무기 반대시위를 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뉴스에 접했다.

노벨상을 수상한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경이 90이라는 나이에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그에게는 성냥이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러셀경은 90세라는 나이에 세계평화를 위해 감옥에 가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고 물었다.

그 후 그는 그의 친구와 둘이 인도에서 미국까지 돈 한 푼 없이 평화를 추구하며 129만 km를 걸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섰다. 그는 친구와 둘이 인도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파리, 런던, 워싱턴, 세계의 핵심 수도를 잇는 대장정의 길을 걸어서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2년 반 동안 15개국을 걸었다. 이슬람 국가, 기독교국가, 공산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부유한 국가, 가난한 국가를 걸었다. 그는 클렘린 궁에 갔고 백악관에 가서 핵무

3) 배기찬, 평화의 때, 통일의 때 in:빛고을평화포럼 창립감사기념강연집

4) 사티쉬 쿠마르에 관한 소개는 문학의 숲 편집부가 엮은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83쪽 이하에서 읽을 수 있다. 필자는 이책외에도 안희경님이 그와 인터뷰한 2021년 7월 27일자를 참고하였다.

기 폐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서 영감을 받고 예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냥은 버트란트 러셀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레타 툰베리에게서 영감을 받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눈을 뜨고 가슴을 열어 영감을 받아 스스로 촛불을 켜고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힘의 바탕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의 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은 책에 있지 않고 교회와 절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저 당신의 가슴속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랑의 힘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의 내면에 숨어 있는 사랑의 힘으로 평화를 향한 순례의 길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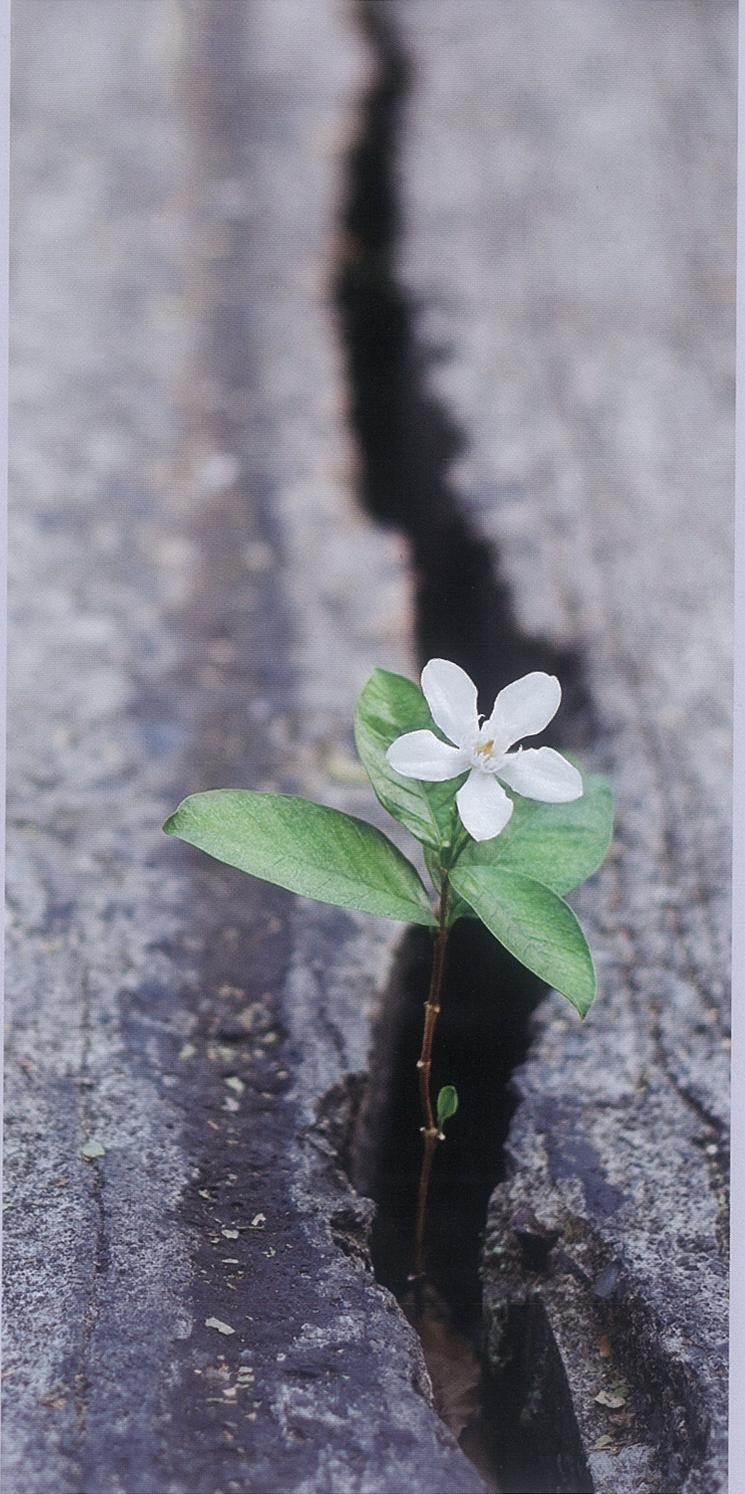
그는 평화순례를 마치고 영국 데번주 다팅턴에 슈마허대학을 세우고 평화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다. 세계 90여 나라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졸업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세계 구석구석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세상속으로 가라. 그러나 일자리를 좇지는 말라”라고 당부하고 단지 돈을 벌고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삶은 인간의 가치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라고 권고한다.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 흙처럼 겸손하여 생산하고 재창조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한다.

평화의 아들과 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사랑의 힘을 깨우는 성냥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서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다.

고난으로 점철된 한반도의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에 있는 평화의 불씨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에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평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질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파괴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평화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그가 이 땅위에 실현하고자 했던 평화를 위해 헌신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신앙으로 조명된 이성

이순식 박사 | 시온성 교회 부목사 / 조직신학

들어가는 말

신앙과 이성은 신앙인이 된 후에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신 존재증명이나 불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기에 적합한가? 라는 문제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자연 이성이 아닌 성령으로 중생한 이성만이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앙의 수위에 손을 들어줬다. 그들은 그렇다고 자연인의 이성이나 지성이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18세기에 태동한 계몽주의는 인간의 객관적 이성과 보편적 경험을 학문 방법론으로 삼은 신학이 학문화되고 사변화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계몽주의는 진정한 종교는 이성 안에 깃들었다고까지 했다. 이성의 가치에 대한 계몽주의적 확신은 점차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교계는 이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화된 합리적인 신앙만을 추구해 정통교리와 신학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조건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아들이고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담긴다. 따라서 성경은 계시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하므로 참된 신앙은 합리적인 순종이며 계시를 이성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¹⁾

성경은 분수에 맞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는 프린스턴 신학(princeton Theology)과 19세기 미국에서 정통 칼빈 신학의 전통을 이끌었던 분이다. 그는 신학 이해에 대한 이성의 작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말한다.²⁾

(1) 진리로서의 계시가 신앙의 대상이 되기

1) Alister E McGrath, John R.W. Stott, Mark A. Noll 외, 「한권으로 배우는 신학교」, David Horton 편, 전의우 역, (서울: 규장, 2012), 93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을 통해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성도들은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가를 이성에 묻고, 만일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하면, 일정 부분 바르다 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앙은 합당한 이유로 진리를 이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성경은 분수에 맞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아들인 아치볼드 알렉산더 핫지(A. A. Hodge 1823-1886)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초적 계시가 이성이며 이어서 오는 어떤 종류의 계시든지 이성은 필연적으로 결론에 기초가 되는 판단이어야 한다”라며 이성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는 “이어서 오는 어떤 계시라도 그 자체의 영역 안에서 합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성은 도덕적이나 감정적 성질과 경험과 함께 후에 이어 오는 계시들을 알고 받아들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한다. 만일 비이성적 존재에 나타나는 계시가 눈먼 사람에게 빛과도

같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자기모순이 될 것이며, 믿음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성에 모순된다면 참되지 않다는 것 말고는 다르지 않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성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느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성은 어떤 것이 증거인가 하는 여부와 초자연적인 계시의 기록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에서 예수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경우 예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인간 이성에 호소하신 것이었다. 따라서 이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된 후에 성경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면 대개의 학문 여부³⁾에 따라

2)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MI: Eerdmans, 1977), 49.

진리를 깨닫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예수께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들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다. 이런 가르침의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모르고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을 깨닫게 하셨다.

이성은 치료와 교정을 받아야 한다

인간 이성이 영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가를 결정할 핵심적인 문제는 자연인, 곧 거듭나지 못한 인간 이성이 영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다.⁴⁾

이성이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려면 반드시 치료와 교정을 받아야 한다.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거듭나기 전 인간 이성이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강조하였다. 그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신지식을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의 언제나 거기에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그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육신적

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내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 없다.⁵⁾

이상과 같이 자연인으로서 이성은 영적 진리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성의 치료와 교정은 중생으로 말미암은 전인적인 변화이다. 자연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신앙인이 될 때 그의 이성도 변화를 받아 본래의 자기 기능을 하게 된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거듭남’이 전인적 변화라고 하여 완전 무결한 성결과 이성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신앙인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 진리를 아는 자들은 성령에게서 기쁨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

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2012), 1-4-1: 칼빈은 신학은 경건이며, 이성적 학문적 지식의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사변적 지식이 아니다.

4) 시 14:2-3, 롬 3:10-12, 고전 1:21, 2:13.

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1-4-1.

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잡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잡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 이시오 영생 이시라.⁶⁾

신앙에 보조적인 지위에 있는 이성

신앙과 이성은 신앙인이 된 후에 중생한 이성이라고 해도 그 자체는 신앙에 대하여 보조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⁷⁾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인의 이성은 영적 진리를 알 수도 없으며, 성령으로 중생한 이성만이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라고 설교하였다(고전 2:1-2).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세속에 속한 곧 자연인의 이성으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며, 이는 매력 없는 설교라는 것이다.⁸⁾

구약성경의 신앙인 중에 아벨로 시작하는

신앙 인물들의 행적은 이성이 아닌 신앙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았고, 노아의 방주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신앙의 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 한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것도 이성의 판단이 아닌 신앙의 결과였다. 신약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그 못 자국에 내 손을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라는 도마의 말에 대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다.⁹⁾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정의했다(히 11:1).

자연인의 이성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믿음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된다. 우리는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에 힘써야 하고,¹⁰⁾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의 몫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도덕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은 거듭남이 없는 불신자라도 어느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다.¹¹⁾

이성과 신앙에 대한 견해

6) 요일: 2:20; 5:20.

7) 박형룡, 「교의신학서론」(서울: 백합출판사, 1972), 189.

8) 고전 1:21; 2:14.

9) 요 20:25; 20:29.

10) 마 28:19-20, 행 1:8.

(1) 이성 수위설(“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구 프린스턴 학파는 변증학(apologetics)이 교의학(=조직신학)보다 앞설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이성 수위를 내세운다.¹¹⁾ 이들을 대표하는 워필드(B. B. Warfield, 1851-1921)는 모든 신학 과목 중에서 변증학이 우선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그 전용방법인 이성이 신학과 종교의 주관적인 요소가 될 때만 신앙보다 앞선다고 주장한다. 변증학은 신앙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반대학설을 반박하기 위해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다.¹²⁾ 워필드는 “신학 과목으로서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 사람의 종교성,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성 계시의 진실성을 확증하여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증학만이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학파와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 전체의 진실성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2) 신앙 수위설(“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화란 개혁파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1837-1920)는 “변증학도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정하고 출발하여 그것들의 변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결코 백지상태의 이성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새로 발견할 수는 없다”라고 신앙 수위

를 강조했다.¹⁴⁾

그는 교의학에 주어진 교리에만 충실할 것을 내세운다. 바빙크(H. Bavinck, 1854-1921)는 “교의학은 유일의 외적 원리인 성경과 유일의 내적 원리인 신앙하는 가능성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그는 “신학 하는 사람은 신앙의 입장에 서서 신앙의 태도로 자연을 관찰하고,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한다.¹⁵⁾ 핫지(A. A. Hodge)는 신앙의 수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는 “자연적인 이성은 종교적 지식의 궁극적 출발점이나 척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단정했다. 그 이유는 귀납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이성은 지금까지 이런 일에 봉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는 역사가 없는 이성만 가지고는 무오한 성경의 해석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¹⁶⁾ 개혁주의생명신학(Reformed Life Theology)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벧후 1:19).

맺는 말

신학이 인간의 이성 능력을 동원하여 체계

11) 롬 1:19-20; 2:14-15.

12) B. B. Warfield, *Article on Apologetics*, (studies in Theology N.Y. 1932)

13) 베드로전서 3:15-16.

14) 박형룡, 「교의신학 서론」, 168: 그도 카이퍼의 신앙 수위 입장이다.

15)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3rd ed, Vol. 1. (Kampen: J. H. kok, 1908), 38.

16) A. A. Hodge, *Outlines of Theology*, 58-59.

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학문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대전제가 요구된다고 한다. 첫째, 한 가지 진리가 다른 진리와 모순될 수 없고, 건전한 이성과 건전한 신앙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다음은 인간의 인식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신앙이 일종의 인식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질서한 판단의 집합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지성의 요구와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빛과 이성의 능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신학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신앙으로 조명된 이성'으로 계시를 해명해야 한다.

신학의 출발점이 근원적으로 계시에 있다고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신앙에 입각한 지성이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지 않는 학문은 신학이 아니다. 여기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theology is not a science)”¹⁷⁾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생명’이다. 그의 ‘생명’이 나(我)와 하나 될 때, 영원(永遠)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我)와 교회와 세상을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때, 온 국민의 하나 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17) 신학은 일반학문 방법과 구별되는 신학의 고유한 학문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벤전 1:10-12; 엡 1:17-19)



이스라엘 민족형성의 개요와 남북관계의 희망

한안석 박사 | 대통령 직속헌법기관 민주평통 자문위원
미국정부법인 워싱턴 북한선교회 이사

이집트 역사 기록

필자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구약학 어떤 교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던 성경적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역사는 이집트 역사에 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학교수님과 학생간의 대화가 왜 잊혀 지지 않을까.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다가 어떤 경이로운 방법으로 탈출해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거의 아무도 이를 의문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역사기록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언급이 전혀 없지만 성경의 전승은 선행적으로 이를 믿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민족이 창안해 낼 수 있는 그런 유의 전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이주와

관련된 영웅 서사시 같은 것이라고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종살이에 관한 회상이 있을 뿐인 것이다.

성경 원저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원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믿는 것이다. 여러 요소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초기 이스라엘, 특히 레위지파 가운데 널리 퍼져 있던 이집트식 이름들은 이집트와 어떤 관련성을 알려 주고 있음이 확실한 것이다. 이런 이름들 가운데 모세는 물론이고 홉니(Hophni), 비느하스(Phinehas), 므라리(Merari) 등이 포함되고 아론을 비롯한 그 밖의 이름들도 그럴 것이다. 이런 증거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셈족 사람들이 이 시대 전체에 걸쳐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이다. 특히 동부 삼각주 지대는 셈족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백의 셈의 단어들 이집트에 유입되었고, 또 가나안의 신

들도 이집트화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집트의 신들과 동일시되어 숭배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주전 15세기 이래의 수많은 문헌들은 이집트에서의 아피루(Apiru)의 존재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¹⁾

이스라엘의 기원시대

주전 2000년대 전반(대략 2000-1550년)을 이스라엘의 기원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성조(聖祖)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시는 곳에서 출발한 것은 아마 이 세기들 기간이었을 것이다. 사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존재 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될 수는 없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주전 13세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한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 자료나 당시의 기록들에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것은 BC 13세기말로 추정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건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 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야기들은 민족전승으로 규범화하여 온 것이지 원래 그런 내용이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기 이전에 생겨났기 때문

이다. 더욱이 그 이야기들은 개개인의 행적들 배후에 있는 복잡한 집단의 움직임들을 은폐하는 서사시의 경향성을 보여 준다. 단순하고 도식화된 창세기의 설화 배후에는 씨족의 대이동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으며 이를 보여 주는 암시들이 설화 자체에서도 얼마간 엿볼수 있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몇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하란을 떠난 것으로(창12:5)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은 큰 씨족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가 없는데도(창13:1-13), 아브라함이 318명의 전사(戰士)를 전장(戰場)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창14:14)은 그의 씨족이 실제로 상당히 큰 씨족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전멸시킨 것(창34장)도 두명의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두 씨족의 행위였음이 분명한 것이다(창49:5-7).

어쨌든 이스라엘의 기원은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신학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서로 다른 여러 종족의 후예들이었다. 같은 혈족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씨족들 가운데 많은 씨족은 후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형성하는데 기여 했다. 주전 2000년대에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와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서 서로 뒤 썩이고 인구가 늘어 갔다는 것은 의

1) 존 브라이트: 박문재 역, 「이스라엘의 역사」,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pp. 156-157

2) 존브라이트: 박문재 역, 「이스라엘의 역사」, p57.

심할 수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각각의 씨족은 자신의 이주 전승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기원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하나의 신앙 아래 이스라엘의 부족 동맹이 형성됨으로써 전승들은 민족 전승으로 규범화 되거나 억제되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기원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

이스라엘의 문자사용

주전 1700-300년에 고대 근동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서기관, 제사장 등은 전문적인 글쓰기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주요문화 중심지에서 활동했다. 평민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글 쓰는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차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5퍼센트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임명한 제사장들과 왕족 관료들이 이스라엘의 글 문화를 주도해 나갔던 것이다. 근동의 각 나라들은 주로 왕궁이 있는 도시에 왕의 서기관들을 훈

련시키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워졌다.

이스라엘에서도 정식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전 8-6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문맹률이 상당히 낮았다고 한다.⁴⁾

이스라엘의 분열과 건국

BC 10세기 중반 번영을 누린 후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멸망했으며, 유다왕국은 BC 587년 바빌로니아인의 침략을 받았다. BC 141년 독립했지만 이후 로마·이슬람교도·십자군·오스만제국 등에 점령당했다.

1947년 국제연합이 팔레스타인 분할을 결의했으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 전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다. 1994년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가자지구 등의 팔레스타인 자치를 이행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⁵⁾

3) 존브라이트: 박문재 역, 『이스라엘의 역사』, pp. 96-97

4) 송병현, 『모세오경』, 국제제자 훈련원, pp.34-35.

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7a3734b006>(검색일 : 2024.2.24.)

분단 역사의 개괄적 고찰

우리나라는 BC 2333년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으며, BC 1122년 기자조선이 건립되었고 BC 194년에 고조선이 멸망하였던 것이다. BC 194년에 위만 조선을 건국하여 AD108년에 멸망했다. BC 37년 주몽에 의해 고구려가 건국되어 AD 668년 멸망하였던 것이다. BC 18년 온조에 의해 백제를 건국하여, AD 660년에 멸망하였던 것이다. BC 57년 박혁거세에 의해 신라를 건국하였으며 AD 668년 3국 통일을 완성하였으나 AD 935년 신라는 멸망하면서 AD 918년 왕건에 의해 고려가 건국되어 AD 936년 고려는 한반도를 통일하였던 것이다.⁶⁾ 즉 한반도 통일은 1300여 년간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결합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분단이 시작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렀으며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뤘다. 경제의 발전으로 국민의 민주의식이 태동한 결과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 9차 개헌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출범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3위, 외환보유고 8위, 수출 규모 5위, 수입 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11위, GFP는 세계 5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⁷⁾

6) 편저자 김태환 「기독교사」 도표에 따라 정리함

7)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검색일: 2024.2.29)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의 북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이다. 초대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영리한 사람을 스카웃 하고, 요직에 몰래 자신의 심복을 심어 넣으며, 매우 치밀하고 과격한 숙청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든지, 머슴 등으로 하대 받던 계층에게 좋은 집을 주거나 높은 자리에 임명하거나 좋은 학벌을 주는 등 그들을 신분 상승시켜주는 식으로 권력욕, 몰욕, 출세욕을 부추겨서 주민 감시 등을 하는 자신의 충성파로 만들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조만식 같은 인물보다 지지받지 못하고 기독교 등을 따르던 사람이 많아 자신의 힘이 약할 때는 소련과 같은 강한 세력에게 철저히 아부를 하여 그 힘으로 숙청을 하다가 자신에게 관여를 하지 못할 틈이 보이면 배신을 하였다.

조직을 쪼갬다든가, 강제적인 상호 비판 등을 통해서 자신 밑에서 서로 싸우게 하기도 했다. 그는 매우 권력욕이 강하였기 때문에 국유화를 명분으로 수탈을 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어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배급제를 철저히 실시하였고, 자식들도 그렇게 권력을 많이 탐하는 자식이 대를 잇게 하여 과거와 같은 자원 독점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현재까지 매우 폐쇄적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90년대 말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체제 유지

의 중요한 메커니즘인 배급제 등이 무너지고 대신 시장 경제가 주민들로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 외부 문물에 대한 철저한 차단도 조금씩 금이 갔다. 그런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라고 비난하는 움직임이 최근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1945년까지는 실질적으로도 남한과 한 나라였다. 연백, 개성, 옹진반도 일대처럼 1950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통치하던 지역도 현재는 북한이 지배하며, 1950년까지 북한이 지배하던 연천, 철원, 속초 일대를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분단 전만 해도 지금의 북한 땅은 가루지기라는 판소리에서 전라도 출신인 변강쇠가 평안도 출신 옹녀와 결혼한다든지, 동부민요는 함경도와 강원도와 인근의 경상도 지역의 민요며 평안도 출신인 손기정이나 함경도 가문인 윤동주가 민족정신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는 등 전라도, 경상도 등과 비슷하게 여겨지던 곳이었다. 1951년까지는 1.4 후퇴 등으로 대량의 인적 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역사를 아예 공유하고 있고 국호, 국가, 언어, 정치 등에서도 서로의 영역과 출신 인물을 포괄하는 양상이 있다. 1971년만 해도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8촌까지 하면 남북한 전역의 주민이 혈연관계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현대 대한민국에 조차 봉산탈춤, 삼수갑산, 벽창호, 북어와 같은 전통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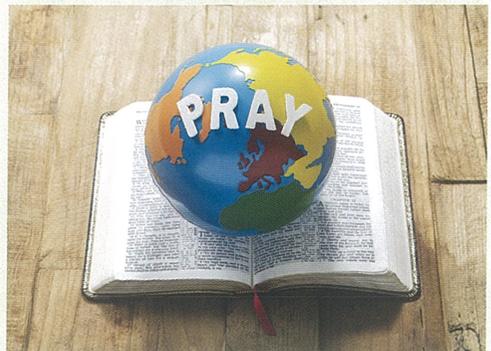
아니라 금융이나 기독교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근대에 설립된 기업, 학교 등에서까지 실향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곳곳에서 북한 지역과 관련된 흔적이 있다.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애초부터 북한의 건국에 중국공산당 출신이었던 연안파가 관여했으며,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시 UN이 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 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2024년부터는 대놓고 '대한민국'을 가만히 놓아두면 체제 붕괴가 이어진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⁸⁾ 그렇지

만 북한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상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북한은 이중적 관계를 갖고 있다.

남북관계는 깊은 겨울밤과 같지만 여명은 반드시 밝아 온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깊은 겨울밤과 같다. 밤이 깊을수록 반드시 여명은 밝아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형성기는 너무나 미미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며 세계 인류의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다. 현재 남북 간의 상황을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교회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북한선교방향을 깊이 있게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황소처럼 뚜벅 뚜벅 걸어가야 할 것이다.⁹⁾



8) <https://namu.wiki/w/%EB%B6%81%ED%95%9C>

9) 데이비드 J. 보쉬: 김병길외, 「변화하고 있는 선교」(2000, 기독교문서선교회), p.13.



한결 같은 기다림

최종수 원장 |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리의원 원장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다림이 쉽다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치가 아닌 기다림은 그 내면에 엄청난 사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줄 알면서 그 결과가 어떻지도 미리 알면서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은 웬만한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하나님의 한결 같은 기다림과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2017년 여름,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판데믹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1~2회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믿음이 시들시들해 질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봉사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마다 회개하

며 큰 은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봉사가 멈추었고 새벽기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저의 신앙은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이 정리된 후 해외의료봉사의 길이 다시 열렸고 영안교회성도들과 함께한 필리핀 의료선교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둘째날 예배 도중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지만 반복되는 음성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왜 이제 왔니?'였습니다. 반복되는 '왜 이제 왔니...왜 이제 왔니...다른 어떤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지만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다시 찾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잠시도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과 말로 표현할 수없는 평안함에 눈



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잠시 멀어져도 언제나 내 옆을 말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일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번 의료선교에서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선교 준비과정에서 진료에 필요한 청진기를 빠트렸고 비행기 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는 감기와 간단한 일반진료를 위한 현지 의사를 선교사님께서 미리 섭외해 두신 일입니다. 의료선교의 열악한 상황에서 한번도 경함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제 전문분야인 통증환자만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까지 불안함과 초조함이 계속되었던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료 중에 지역가구 방문을 하던 청년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상환자가 있는데 좀 와서 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식사 전에 잠시 들렸습니다. 20대 젊은 여자 환자였는데 홍콩 직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일어나지 못하고 몇달간 누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욕창이 있었는데 치료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의료선교 중에 이런 환자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치료 준비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 입니까? 제 가방에 욕창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전날 진료지역 이동을 위해 가방을 챙기던 중 소독 도구와 두툼한 패치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생 딸 아이와 여행을 다닐 때 혹시나 다치면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비상용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필리핀까지 가져간 것도 이번 사역에서는 통증 진료만 하던 제가 그곳에 그 가방을 가져 간 것도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은 바로 그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 하셨습니다. 함께 방문했던 청년들도 방문사역 중에 지역주민이 집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처음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음 깨닫고 또 한참을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이번선교 중에 기도할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신앙을 잃어가던 저를 언제나 지켜주셨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깨닫는 순간 저에게 찾아온 평안은 흐르는 눈물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덧 부모님을 떠나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모님도 자녀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동북아한민족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People in Northeast Asia)는

1999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 볼룸)에서 50명이 모여 '동북 아세아선교회'로 시작하였으며, 2000~2002년 3월까지 '동북아세아선교회'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909-8(2층 20평)에 임차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후 '동북아세아선교회'는 '동북아한민족협의회'로 2003년 2월 15일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107호)를 받아 제1대 장상례 이사장을 주축으로 대북지원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2017년 기간에는 남북 교류중단으로 NGO 활동은 중단되었으나 탈북자 주민들을 돕고 있다.

우리협의회는 북한동포 의약품 지원 (항생제, 영양제, 비타민, 결핵약 등), 북한동포 생필품지원(밀가루, 식용유 등), 북한 농어촌 지역 옷감 지원, 생필품(라면, 쌀, 세탁비누 등), 비료지원 등을 통해 민족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로운 북을 통일의 시대를 향해 기도로 비상하며 북을통일의 역군으로서 NGO가 되길 갈망하고 있다.

북한 의약품 지원 - 1차로 2000년 5월에 북한에 지원할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원화 10억 원을 미국 샘 의료재단 협조아래 모금하여 지원하였고, 2차로 2003년 5월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56만불(원화 6억7천만원) 상당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결핵 약 한 알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 30만 명을 위해 'SBS 북한결핵 어린이 돕기' 패널로 참석, 전국적인 후원 모금에 동참, 선교비를 후원하였다. 본회는 이 민족의 소망과 열망인 평화통일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북한 동포에게 생필품(밀가루, 옥수수, 분유, 식용유 등)과 의약품(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비타민, 연고 등)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정부의 통일정책,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본 통일방향을 홍보하고 북한동포의 사랑의 실천(물자지원)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정관3조).

북한교회 의류지원 - 2002년 9월 28 일 평양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가정예배 처소에 양복 옷감 (2000벌×10만원 = 2억원)을 지원하였다.

평양 빵 냉동공장 지원 -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료품 보관에 따른 문제로 인해 2006년 5월 평양 빵공장에 냉동설비 12억원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동포 의약품(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비타민, 구충제, 연고 등) 지원, 북한동포 생필품(밀가루, 옥수수, 분유, 식용유 등) 지원, 북한 교류 및 시설지원.(봉수 빵공장, 냉동설비), 북한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예배처소 물품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간행지 발간, 북한선교(가정예배 처소 중심),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한다.

동북아한민족협의회섬기는 분들

본회 직명	성 명	주요경력
대표회장(이사)	양 병 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 기독교연합신문사 대표이사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장 /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이사장(이사)	이 정 익	전 CBS 방송이사장 / 희망재단 이사장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부이사장(이사)		
이사	김 진 흥	CBS청주방송국이사장 / 금천교회 원로목사
이사	백 승 억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중경총회장 / 서산이룸교회 원로목사
이사	박 응 순	인천경찰청 중앙경목위원 / 주안중앙교회당회장
이사	선 중 희	전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사무국장 / 행복한동산교회 당회장
이사	온 재 천	아산기독교연합회회장 / 광혜교회 당회장
이사	안 주 훈	개인사업 / 영안교회 장로
이사	정 광 식	(주)지엔씨소프트 대표이사 / 은평교회 집사
이사	박 양 수	개인사업 / 장로
이사	이 범 균	디엠케이 대표이사 / 장로
사무총장(이사)	한 안 석	대통령직속민주평통자문위원/미정부법인위성턴북한선교회 이사 /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신학회 협력이사
감사	조 관 섭	개인사업 / 장로
감사	강 명 식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장		
후원이사	김 기 주	개인 사업 / 장로
후원이사	김 현 수	개인 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김 대 수	개인 사업 / 장로
후원이사	김 형 곤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김 수 남	약사 / 안수집사
후원이사	김 중 배	개인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권 형 남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사장 / 안수집사
후원이사	박 영 희	개인사업 / 권사
후원이사	박 용 균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백 성 국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신 동 욱	회사원 / 장로
후원이사	이 건 수	백석대학교수 / 장로
후원이사	이 준 영	개인 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유 택 열	개인 사업 / 장로
후원이사	이 강 식	개인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이 동 규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안 영 준	교사 / 안수집사
후원이사	양 병 찬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최 중 수	우리의원 원장 / 안수집사
후원이사	하 영 균	개인사업 / 안수집사
자문위원	김 진 섭	전 백석대 부총장 / 전 백석신학대학장
자문위원	김 성 훈	법률사무소 청지기 대표 / 경기도 고문 변호사
자문위원	양 영 식	전 통일부 차관 / 기독교통일포럼 공동대표 / 거룩한문성문교회 원로장로 / 기독교 통일포럼고문 / 통일선교이카데미본부교수 초대원장 / 4.19혁명공로자회 고문
자문위원	이 양 호	동북아한민족연구소장 / 전 고려대학교 교수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자문위원	조 창 희	안양대 겸임 교수 /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예술경영연구원장, 민우세무법인 고문
자문위원	주 도 흥	전 백석대 부총장 / 전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자문위원	주 동 일	동원대학교 교수 / 영안교회 장로 /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부총회장
자문위원	송 태 호	송내과의원 원장 / 영안교회 장로
연구위원	이 동 현	교회정보기술연구원장 / 스마트침묵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통번역위원	김 조 섭	전 영안교회 영어예배부 전도사 / 프리랜서 통번역
통번역위원	유 진	영안교회 영안방송실 통번역 간사
재정간사	이 정 순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재정간사 / 영안교회 권사
행정간사	박 춘 덕	통일부 정보분석국 사무관 / ভাল자연구소 여행연구소장 / 중랑향토문화 해설사
연구간사	오 흥 엽	동북아한민족연구소부소장 / 친디루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홍보간사	정 영 교	중앙일보 연구원 / 영안교회 집사 중앙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20기 상임위원 / 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동북아한민족협의회심기는 분들

대표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양 병 희	이 정 익		김 진 홍	백 승 익	박 경 배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박 응 순	선 중 희	은 재 천	안 주 훈	정 광 식	박 양 수
이 사	사무총장 / 이사	감사	감사	후원이사장	후원이사
					
이 범 균	한 안 석	조 관 섭	강 명 식	김 기 주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김 현 수	김 대 수	김 형 곤	김 수 남	김 중 배	권 형 남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박 영 희	박 용 균	백 성 국	신 동 욱	이 건 수	이 준 영

후원이사



유택열

후원이사



이강식

후원이사



이동규

후원이사



안영준

후원이사



양병찬

후원이사



최종수

후원이사



하영균

자문위원



김진석

자문위원



김성훈

자문위원



양영식

자문위원



이양호

자문위원



조창희

자문위원



주도홍

자문위원



주동일

자문위원



송태호

연구위원



이동현

통번역위원



김요셉

통번역위원



유진

재정간사



이정순

행정간사



박춘덕

연구간사



오흥엽

홍보간사



정영교

사단
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People in Northeast Asia